

[목회실에서]

Amazing Grace

김한성 목사

감사절을 맞아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와 모처럼 온 가족이 오손도손 단란한 시간을 갖습니다. 또 요즘은 분주한 삶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있는 도시로 부모가 먼저 달려 가기도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감사절은 한 숯밥 식구가 한 자리에 모이는 “함께함”의 절기입니다. 숨가쁜 삶의 달음박질 중에 잠시 멈춰서서 가족,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을 감사절에는 조금 똥똥지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 감사절 성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묵직한 삶의 수레바퀴를 이리저리 굴리며, 또 고달픈 인생의 쳇바퀴 위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느라 어느덧 하늘 아버지를 잊어버린 우리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 맘 살피 드리지 (기도하지) 못해서 만나면 속사포로 묻고 싶은 긴 리스트를 몰래 가슴에 품고 계신 아버지. 아들/딸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어느 것도 아깝지 않은 부모의 마음. 하나님 집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왔어요.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이 인사만 있으면 그 동안의 지리적/심리적 거리가 모두 다 한 순간에 녹아 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기쁨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식탁에 다시 한 번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쉼과 안식이 넘쳐 납니다.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바쁨이라는 세상을 향해 질주 할 때도 아버지 사랑의 그림자는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머리 속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한 점도 남아 있지 않는 순간에도 아버지 가슴은 온통 저희들로 가득 차 있었군요. Your grace is enough! 아버지의 충격적인 은혜 (amazing grace)에 감사 드립니다.'

Children living afar from home have returned for Thanksgiving, for family reunions. For some of us, it has been quite some time since we have had family time together. Some parents visit their children's resident cities where they have busy lives. What is important is not where we meet but being "together" in the same space because it becomes a great joy. Thanksgiving is a season where families reunite and share a meal together. It is a season of taking a break from our busy lives and remembering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relationship.

This Thanksgiving I asked myself this question, “Isn’t God preparing a Thanksgiving dinner for His children living far away?” God has been anxiously waiting for those who live busy lives at full speed and those who manage life barely remembering Him. Our Father has a long list of questions for us since we haven’t met for so long in prayer. He has the heart of a parent who spares nothing for their children. What is the first thing we must say when we enter the house of God? ‘Lord, I’m here. Abba Father, I love You.’ With this greet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stantly disappear.

“Dear Lord, thank you so much. It hasn’t been an easy year. There were many hard, exhausting moments. However, you led us here to have us run joyfully and have invited us once again to Your table of love. Your house is overflowing with rest. It is filled with joy and peace. Even when we led busy lives without You, the shadow of Your love remained with us. Your heart is always full of us even in the moments where we don’t remember You. Your grace is enough! Thank You for Your amazing grace.”